

도시 전업주부의 재정 스트레스 및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Urban Unemployed Housewives' Financial Stress and Coping Strategies

숙명여자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아동복지학부

교수계선자*

강사유을용

Department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essor : Key, Sun-Ja

Lecturer : Yoo, Eul-Yo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duce the unemployed housewives' stress and to seek proper strategies to cope with the stress by understanding stress of urban unemployed housewives' caused by financial management.

The survey for this study was conducted in the capital city of Korea, Seoul and other major cities. The subjects included housewives in these areas who currently cohabited with their spouses and had at least one child or more. The preliminary and main survey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between November 12, 2001 and February 27, 2002.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to establish an appropriate policy in order to improve the economic welfare and to develop strategies or related programs in order to overcome financial crisis in the family economy.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The stress level of urban unemployed housewives caused by the financial management showed an average of 2.64 out of 5.0 and the level of utilizing strategies to cope with the stress indicated an average of 2.79 out of 5.0.

(2) There were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stress caused by the financial management and the strategies of overcoming the stress indicated positive correlation($r=.378$).

(3) Relative contributor among independent variables to cope with stress was analysed and at the second phase in the process of the analysis, the subjective variables appeared to be significant variables to contribute to cope with the stress.

▲ 주요어(key words) : 전업주부(Unemployed Housewives), 재정 스트레스(Financial Stress), 대처행동(Coping Strategies)

I. 서론

2001년 9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실질적으로 IMF 구제금융 체제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기불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의 실질임금 상승률은 계속적으로 늘

화세를 보이고 있으며 소비자 물가는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3.2% 상승되었다(동아일보, 2001년 9월 29일자).

가계를 둘러싼 경제적 환경이 개인의 생활을 구성하는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라고 볼 때 이와 같은 경제적 상황의 악화는 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가계는 가정생애주기에 따라 가족원의 다양한 경제적 요구와 소득 및 자산수준은 변화하며 실직, 사고, 질병, 사망 등 가정 내적인 요인으로 인한 예

* 주저자 : 계선자(E-mail : kyesi@sookmyung.ac.kr)

촉하지 못한 상황을 경험하기도 한다.

사회의 최소단위라 할 수 있는 개별 가계의 유용 가능한 경제적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며 가족구성원의 다양한 재정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유용한 자원의 확보와 조달이 필요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로 인하여 가계 관리자는 재정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하였으며 실제 주부들의 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더라도 주부들이 가장 크게 스트레스를 인지하는 문제가 가계의 경제적 문제라고 밝혀지고 있다(김명자, 1992; 이정우·최덕경, 1992; 조혜정·임정빈, 1994).

특히 맞벌이 가계가 아닌 훌벌이 가계의 전업주부인 경우 가구주의 소득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여야 하므로 취업주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재정 스트레스를 보다 높게 인지하리라 생각된다.

지금까지 가계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주로 경제적 어려움, 재정적 사건, 재정문제 등으로 연구되었을 뿐(박선옥, 1996; 이경옥, 2000; 이정우·정진희, 1999; 정혜경, 1999; 최자령·임정빈, 1996; 황덕순, 1995; 홍향숙 1999; Lee, 2000; Varcoe, 1990; Vandsburger, 2001; Voydanoff et. al., 1988; Zinca & Buckner, 1989), 스트레스의 관점에서 가계관리자의 실제적인 재정 스트레스를 중점적으로 다룬 논문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한편 개인은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도 이에 대해 서로 다르게 반응하고 있으며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면 스트레스 상황이 오히려 개인의 성장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나 가족이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즉, 주부가 인지한 재정 스트레스는 대처행동에 따라 인지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가정경제의 핵심은 자원 배분의 문제였으나 오늘날 가정경제의 핵심은 주어진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관리하는가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가족이 겪는 재정문제 원인 중의 하나는 가계관리자의 가족자원의 관리 미숙이며 이는 특히, 금전적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하지 못하는데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최자령·임정빈, 1996). 가계관리자인 주부의 재정 스트레스는 주부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의 만족감과 복지에 영향을 미치므로 가정경제 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주부의 재정 위기관리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자원과 정보가 맞벌이 가계에 비하여 한정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재정문제 혹은 재정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연구된 논문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취업하지 않은 전업주부 가계를 대상으로 주부가 인지한 재정 스트레스를 지출, 자산, 소득, 부채 스트레스로 세분화하여 영역별로 배경변인에 의한 영향력을 고찰함과 동시에 대처행동을 계획 및 지출관리 행동, 치불연기 행동, 차용행동, 상담 및 정보탐색 행동 차원에 따라 각각의 스트레스 및 대처행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주부의 재정 스트레스와 대처행동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재정위기 상황하에서 가계관리자의 스트레스를 경감

시키고 합리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가계의 궁극적인 목표인 가정경제복지 향상을 위한 가계재무관리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II. 문헌고찰

1. 재정 스트레스¹⁾

1) 지출 스트레스

대부분의 가계는 현재 욕구 또는 욕망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새로운 욕구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생활의 안락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에너지, 화폐, 시간 등과 같은 자원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함으로 인해 가계관리자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홍향숙, 1999).

이와 더불어 비합리적인 소비행위도 가계의 재정문제를 유발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인데 매일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지출 및 저축의 결정은 적은 금액일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치밀한 계산을 잘 하지 않고 습관적 지출, 총동적 행위가 나타날 수도 있고 생활수준이 높은 준거집단의 영향으로 잘 사는 이웃을 모방하여 자신의 재정상태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소비지출을 함으로써 재정문제가 유발되기도 한다. 가계의 지출행동은 가계가 가족생애주기별로 갖게 되는 다양한 재정적 요구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적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각 가정은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소유한 경제적 자원의 종류와 내용 및 양이 다를 것이며, 또한 가족의 생활목표에 따라 경제적 자원의 사용유형과 방법도 달라질 것이다.

실제 IMF 구제금융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소비자들을 가장 불안하게 하는 것은 소득감소, 실직, 물가상승이며 대부분의 가계가 소득이 줄어들어 그 결과 소비지출을 줄였다고 하였다(대우경제연구소, 1999). 한국소비자보호원(1999)의 IMF체제 전후의 소비의식 및 행태비교 조사의 결과에서도 조사가계의 74.6%가 재정 계획을 취소 혹은 연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위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이미숙·고선주·권희경(2000)은 경제적 스트레스에 대하여 부부를 함께 연구하였는데 자녀교육기의 부부들이 직업 및 경제적 곤란상황과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가장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양자 역할에 대한 압력과 기대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남편의 경우에 경제적 스트레스를 더 받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중요한 물건구입을 나중으로 미룬 경우는 조사대상자의 대다수가 그리한 경험을 하였으며 다음에는 가계수지를 맞추는데 있어서의 어려움, 돈 문제 때문에 식구들이

1) 전업주부만을 대상으로 조사된 선행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므로 본 이론적 고찰은 전체 도시주부를 대상으로 연구된 자료임을 밝힌다.

다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병원 가는 것을 미룬 경우, 각종 요금을 제때 내지 못한 경우, 예금이나 보험 등을 해약한 경우도 많은 부부들이 경험한 것으로 연구결과 나타났다.

2) 자산 스트레스

소득과 더불어 경제자원의 수준을 평가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변수는 자산이다. 가계원들의 경제자원의 요구에 대해 즉각적으로 사용되는 자원은 소득이지만 소득원의 상실로 소득유입이 감소 또는 중단된다면 가계는 기본적인 경제자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자산을 사용해야 하므로 소득이 축적된 형태인 자산 역시 중요한 경제자원이다(노자경, 1995). 가계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은 소득의 원천임과 동시에 위기에 대한 대처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어서 가계의 순자산, 금융자산 등의 척도들은 소득지표와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로서 사용되어 왔다. 삼성경제연구소(2002)의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가계자산은 부동산으로 전체자산 중 73%를 차지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소득계층별로 볼 때 소득이 높을수록 은행예금, 간접투자, 주식 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반면 소득이 낮을수록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가계의 미래는 현재 가계소득과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는가에 의해서 크게 달라진다. 즉 소득이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가계의 안정과 향상을 얻고 가족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산관리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산관리의 평가기준이 되는 개념은 수익성과 안전성, 그리고 환금성(유동성)이다. 수익성은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남기면서 자산을 증식시키는가의 문제이고, 안전성은 자산을 잃어버릴 염려 없이 얼마나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이며, 환금성은 현금이 필요할 때 얼마나 손쉽게 자산을 처분하여 현금화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이정우·정진희, 1999에서 재인용).

최근 우리 사회는 빠른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말미암아 이미 2001년 현재 노인인구 비율은 전체의 7.1%를 넘어섰으며 2022년에는 14.3%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수명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70~80년을 사는 것은 보편화되어 있으며, 경제활동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노인부양비는 1990년의 7.4%에서 2000년 10.0%, 2022년 20.8%, 2030년 29.8%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된다(조선일보, 2001년 10월 9일자). 따라서 노후생활자금에 대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며 또한 명예퇴직이 일반화되고 있는 사회환경에서 긴급자금에 대한 문제도 어느 때 보다 그 중요성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3) 소득 스트레스

현대 자본주의 경제사회에서 가계가 경제적 자원을 획득하는 일차적 방법은 직업을 통하여 소득을 얻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교환경제체제에서 화폐로 대변되는 소득은 가족의 생존에 필수적인 재화와 용역의 구매수단이 되며 가정에서의 경제생활영위를

위한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1999)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63.3%가 물가상승보다는 소득감소에 따른 불안감을 가장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Varcoe(1990)의 연구에서도 가계의 재정적 스트레스를 직업관련 사건(은퇴·실직·직업바꿈), 건강관련 사건(심장병·질병·사고·소득원의 죽음) 그리고 가족관련 사건(이혼·자녀출산·자녀 대학교육)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가계의 소득과 관련된 직업관련 사건을 가장 빈번히 경험한다고 하였다. 고보선·임정빈(1992)은 가계소득을 적절하게 인지하면 가정문제를 덜 경험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가계소득이 규칙적이고 안정적일수록 가정경제 문제경험을 덜 인지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였다.

4) 부채 스트레스

부채는 일생에 걸쳐 가계소득을 재분배함에 있어서 수단이 되며 부채를 이용함으로써 가계는 소비의 총효용을 극대화 할 수 있다. 부채의 이용은 가계의 현재 구매력을 증가시킴으로써 가계 생활표준으로서의 접근을 더 용이하게 하며 가계소득의 감소나 실업 등과 같은 특정 상황하의 경제적 곤궁에서 일정수준의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Herendeen, 1974).

가계의 경제 행위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양과 부채 포트폴리오에 기초하여 다양한 반응으로 나타난다. 가계의 소득이 증가할 때, 부채가 없는 가계는 자산을 축적할 수 있으며, 부채가 있는 가계는 현재의 부채를 감소시키는 대신 새로운 자산을 축적하기도 한다. 가계가 특정자산을 획득하기 위해 부채를 보유하고, 이러한 부채보유가 바로 특정 유형의 자산을 의미한다는 사실은 자산과 부채간의 상호의존성을 암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문숙재·김순미·양정선, 1996).

한편 주인숙·이연숙(1996)의 연구에 의하면 조사대상가계의 대다수가 부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사회에 있어 가계부채사용은 보편적인 가계재정관리형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신중한 부채관리가 가계에 있어 보다 중요성을 가짐을 의미한다. 실제 우리사회는 저금리 기조와 가계 대출 증가로 2001년 12월 현재 가구 당 부채가 2200만원으로 집계되고 있다(한국일보, 2001년 12월 15 일자). 특히 가계의 소비활동과 관련이 높은 판매신용은 신용카드의 사용증가로 전년 통계 대비 37.4%로 증가한 추세이다(삼성경제연구소, 2002). 이는 소비자신용의 이용이 일반화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 부채를 사용하지 않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만은 아니며 가계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가계부채의 관리기술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계 중에는 자신의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극박한 상황도 있으나 보편적으로 자신의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동시에 근로소득 외의 자산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얻고자 하는 투자성 부채를 보유하기도 한다. 이처럼 부채가 자산증가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으나, 생애 주기에 걸쳐 가계의

자산과 부채 포트폴리오에 극복할 수 없는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되거나 부채액을 기초로 한 투자의 수익률이 기대수익률에 못 미치게 될 때, 가계는 재정적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문숙재·김순미·양정선, 1996).

다시 말해 부채를 안고 있는 가계들이 재정적자나 지불연기, 가계파산 등과 같은 재정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한 가계가 이러한 재정문제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다(성영애·양세정, 1995). 결국 부채의 부담은 원금·이자의 상환과 함께 가계 가용자금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는 가계의 소비패턴에 영향을 미치며 가계저축에도 제약을 주게 되고 지나친 부채 부담은 가계에 경제적 손실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부채문제는 가계관리자의 재정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이정우·정진희, 1999).

2. 재정 스트레스 대처행동

대처행동이란 자극원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부정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인과 가계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대처행동을 취하는 것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불안 타개책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자극 자체보다 그 대처행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스트레스에 따른 사회·정서적 적응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대처행동이라는 주장은 기존의 연구에서 지지되고 있으며 (Beaver, 1997), Burr 등(1995)이 밝힌 것과 같이 스트레스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목표 중 하나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는 가장 효율적인 대처행동 양식을 확립하는 것이다.

최근에 이르러 다양한 가계의 재정문제에 대한 대처행동을 유형화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려는 연구(손상희, 1995; 제은석, 1999; 최자령·임정빈, 1996; 황덕순, 1995; Buehler & Hogan, 1986; Moss & Billongs, 1982; Varcoe, 1990; Voydanoff, 1990; Voydanoff & Donnelly, 1989)가 이루어지고 있다.

Moss와 Billongs(1982)는 대처행동의 주요 패턴으로 상황중심 대처(appraisal focused coping)와 문제중심대처(problem focused coping)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Buehler와 Hogan(1986)은 자원중심적 유형, 목표중심적 유형, 제약형 유형으로 나누어 대처 행동을 설명하였다. 자원중심적 유형은 요구구조에 맞추기 위해 자원을 창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자원구조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행동전략이고 목표중심적 유형은 자원중심적 유형과 상반되게 그들이 현재 갖고 있는 자원구조의 한계에 따르기 위해 요구를 미루거나 제거하거나 표준을 낮춤으로써 요구구조를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두는 행동전략이며, 제약적 유형은 가족의 자원이 제한되어나 부적절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요구구조나 자원구조의 어느 것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1990년대에 이르러 Martin과 Burr(1992)는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대처전략으로 인지적 전략, 의사소통전략, 감정적 전략, 관계전략, 정신적 전략, 환경적 전략, 발달적 전략의

7가지를 들어 연구하였는데 이 중 경제위기 스트레스 대처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경제위기 타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지식이나 정보를 획득하는 인지적 전략과 주변의 친지나 친척 등 타인의 도움을 구하는 환경적 전략, 개인의 자원성을 좀 더 개발시키는 발달적 전략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Voydanoff(1990)는 경제적 디스트레스(destress)에 대한 대처전략으로 재정관리(Financial Management), 비공식적 경제 활동(Informal Economy), 자기노동력활용(Do-It-Yourself), 가족 노동력 활용(Family Work Effort), 재정규모확장(Financial Overextension) 등을 들고 있는데 각각에 대해 살펴보면 재정관리에는 매일 매일의 지출기록과 계획적인 지출, 가계운영의 목표 설정 등을 포함하며 비공식적 경제활동에는 중고품시장에서의 구매, 교환, 판매행위, 공판장이나 경매시장을 이용하는 것 등이 포함되고 자기 노동력 활용에는 의복의 직접 제작과 수리, 완성품이 아닌 조립제품의 구입, 가족 노동력 활용에는 가장 및 가족원의 취업 혹은 부업, 근로시간의 연장, 재정규모 확장에는 보험이나 저축의 이용, 소비자 신용이나 대출과 같은 행동을 그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국내연구로 최자령·임정빈(1996)은 도시가계의 재정적 사건을 경험할 경우 이루어지는 대처전략을 자산이용, 차용행동, 절약구매, 지불연기의 4가지 요인으로 분류하였으며 황덕순(1995)은 가계가 경제적 불안을 극복하거나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행하는 대처행동을 피동적 적응행동, 의도적 관리행동 그리고 규범적 절약행동으로 연구하였다. 손상희(1995)는 절약 및 노동력 활용, 재정관리, 의존적 행동, 한계적 행동, 소극적 노력, 적극적 노력 등으로 제은석(1999)은 소극적 노력, 자산이용, 지불연기 행동, 절약구매 행동, 의존적 행동으로 유형화하여 대처행동을 연구하였다. 가계의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대처행동을 연구한 이경옥(2000)은 경제위기 대처행동을 크게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의 두 유형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는데 적극적 대처에는 경제위기 관리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활동과 가계소득확장을 위한 노력을, 소극적 대처에는 욕구의 억제와 임시방편적인 대응을 두어 살펴보았다.

또한 강이주·성영애(1999)는 대처행동의 유형으로 소비지출 절감 노력, 자산이용 노력, 소득창출 노력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3영역 모두에서 가계소득감소를 경험한 가계가 그렇지 않은 가계에 비하여 노력을 더욱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영역 중 소비지출 절감 노력의 정도가 가장 크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Vorcoe(1990)는 예상치 못한 가계 재정요구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그 해결방법을 연구하였는데 비상금을 사용하거나 저축을 찾아 쓰거나 새 옷 구매와 같은 교양활동을 하지 않고 지내는 것 등의 긴축 재정 행동으로 대처하는 비율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차용이나 지불연기와 같은 대처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김혜정·이기영(1997)은 지출절감 전략은 대처적 성격이 강한 전략이지만 지나친 지출억제는 재정만족감을 감소시키므로 무조건적인 지출억제가 아닌 합리적인

화폐관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Olson(1994)도 재정위기에 있는 가계의 가장 즉각적인 반응은 소비지출을 줄이는 것이나 이는 더욱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소비지출절감 전략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외에도 성영애·양세정(1995)에 의하면 신용카드, 금융기관, 회사를 통해서 대출을 받는 방안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현대사회를 신용사회로 지칭할 만큼 가계에서 차용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 종류도 사채·계 등의 사부채 이용 위주의 패턴에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이용으로 급변하는 추세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계의 부채는 신용대출, 담보 및 보증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신용대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연령이 높을수록 담보 및 보증대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 2002).

가계의 재산처분을 통하여 재정적 자원을 확보하는 방법인 적극적인 대처전략도 있으며(손상희, 1995; Varcoe, 1990), 청구서 지불 안 하기(Varcoe, 1990), 지불규약 재조정, 다른 방법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기(Zinca & Buckner, 1987) 등의 수동적이며 의존적인 대처전략도 많은 가계에서 이용하는 대처전략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처방안 중 적금, 보험의 해약이나 토지, 주택, 귀금속 등의 매각은 가계의 재정문제 해결방안으로 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대처방안은 갑작스러운 매각 시 손해를 입기 때문에 사용을 꺼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재정 스트레스에 대한 주부의 대처행동은 한 두 가지의 대처행동으로 규정되지 않고 그 이상의 여러 행동 유형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계획 및 지출관리 행동, 차용행동, 지불연기 행동, 상담 및 정보탐색 행동 등으로 유형화하여 주부의 재정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분석하겠다.

3. 재정 스트레스와 대처행동

Voydanoff와 Donnelly(1989)는 경제적 불안과 대처행동이 성적 상관관계가 있어 경제적 불안이 큰 가계일수록 대처행동 점수가 높게 나타났음을 밝혔다. 다시 말해 가계는 경제적 불안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Varcoe(1990)도 예상하지 못한 가계재정요구 사건이 생겼을 때 스트레스와 관련된 대처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비상금을 사용하거나 저축을 찾아 쓰거나 새 옷 구매와 교양활동을 하지 않고 지내는 것 등의 긴축 재정활동으로 대처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았고 차용이나 지불연기와 같은 대처행동 양상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황덕순(1993)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안정과 대처행동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경제적으로 불안할수록 대처행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즉 재정적 안정도가 낮은 집단,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과 같이 경제적 불안수준이 높아 재정요구도가

높은 집단에서 대처행동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최자령·임정빈(1996)은 가계의 재정적 사건을 그 내용별로 영역화하여 금전관련, 자동차 및 내구재 관련사건은 차용행동으로, 금전관련, 직업관련 사건은 지불연기의 대처전략으로, 가족관련 사건은 절약구매 대처전략으로, 금전관련과 자동차 및 내구재 관련 사건은 자산을 이용하여 대처한다고 주장하였다.

4. 재정 스트레스와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

1) 객관적 변인

(1) 연령

가계관리자인 주부의 연령은 재정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광주(1990)의 연구에 의하면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남편의 퇴직 및 질병 또는 배우자의 실직 등에 관련된 스트레스가 높다고 보고 한 반면 Varcoe(1990)은 연령이 적을수록 자녀교육비 등의 재정적 문제를 많이 겪는다고 하였다. 노자경(1996)의 연구에서도 40대는 생애주기 상 자녀의 교육 등 여러 가지 경제자원의 요구가 많은 시기이므로 소비지출, 자산, 소득의 모든 영역에서 스트레스 지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하였다.

대처행동유형은 Varcoe(1990)는 연령이 적은 집단은 '웃, 오락비 등에 지출 안하기' 와 '돈빌림', '대금지불연기' 등의 비교적 소극적인 대처전략을 사용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이경옥(2000)의 연구에 의하면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현재의 자원구조나 자원의 정도를 변화시키지 않고 현 소득 범위 내에서 욕구를 억제하고 지출을 줄이려는 소극적 대처를 주로 이용하고 있고 연령이 적을수록 소득확장과 정보탐색을 통한 가계자원의 구조적 변형과 자원의 양적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적극적 대처를 많이 한다고 하였다. 주부의 연령과 대처행동으로서의 예산관리 행동을 볼 때 Beutler와 Mason(1987)에 의하면 연령이 낮을수록 예산을 정규적으로 세운다고 보고하였다.

(2) 교육수준

교육수준과 재정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볼 때 김혜정·이기영(1997)은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지불연기 행동을 더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적절한 지불시기와 세부적인 이자율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가지게 되고 이에 따라 지불시기와 이자율을 고려한 납입마감일 이용이나 신용카드, 할부구매와 같은 지불연기 행동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황덕순(1995)과 김시월·박배진(1999)은 주부의 학력이 낮을수록 소극적 대처행동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피동적 적응행동과 규범적 절약행동을 많이 한다고 하였다.

(3) 월평균가계소득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가정경제의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며(고보선·임정빈, 1992; 김미현 등, 1993; 박선옥, 1996; 이정우·최덕경, 1992), Bruce(1996)도 가계의 소득이 높

을수록 재정적 긴장은 감소한다고 하였다. 가계소득과 재정 스트레스간의 관계에서 박선숙(1996)은 소득이 낮은 집단이 인플레이션과 물가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을 많이 경험한다고 하였으며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는 자녀의 과외비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한다고 하였다. 가계소득과 대처행동을 볼 때 김혜정·이기영(1997)은 가계소득이 적을수록 지출절감전략을 자주 사용한다고 하였으며, 황덕순(1995)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안정과 대처행동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서 경제적으로 불안할수록 대처행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정도가 낮은 집단, 재정안전도가 낮은 집단,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과 같이 경제적 불안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대처행동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자신의 가계가 최 하류층이라고 인지할수록 소극적 대처를 주로 하였는데 이는 영세가계의 위기대처 전략은 욕구억제를 통한 지출감소 전략을 가장 많이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종해(1993)는 가계소득의 대부분을 가구주의 근로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일반적인 가계에서 가구주의 건강의 상실이나 실업 등으로 가계소득이 단절될 경우 이에 대한 대처능력은 미흡한 수준이었다고 하였고 일반적으로 가계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재정위기에 잘 대처하는 경향이라고 보고하였다.

(4) 직업

가구주의 직업은 가계소득 및 자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재정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의 하나이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가구주의 직업이 관리·전문직일 때, 다시 말해 남편의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가족원의 욕구충족과 가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분배에 제약을 적게 받아 재정문제의 경험을 적게 하므로 가계재정복지 수준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계선자·유율용, 1999; 고보선, 1995; 김연정·김순미, 1991; 김재경·문숙재, 1992; 이경옥, 2000; 한정화, 1997; 홍향숙, 1999).

가구주의 직업유무와의 관계에서 볼 때 Winter 등(1984)에 의하면 가장의 직업이 있을 경우 가정의 경제적 복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박선숙(1996)은 전업주부보다 취업주부가 재정문제를 많이 경험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기혼여성들의 취업동기는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2) 주관적 변인

(1) 부부 의사소통

부부 의사소통은 가정 내에 남편과 아내가 자신의 역할과 생활의 목표에 관하여 대화함으로 자신과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며 기·정생활에서의 적합한 역할개념을 명확히 해줌으로써 재무관리 행동에 중요한 투입요소로 생각할 수 있다(임정빈 등, 1998). 그러나 부부 의사소통과 재정스트레스, 대처행동간의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2) 생활정보활용도

생활정보는 의사결정의 불확실함을 감소시켜 주며 현재 및 미

래의 의사결정에서 주부의 욕망충족 및 기타 목표달성을 유용하게 활용된다. 생활정보활용도와 경지복지감 사이에는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선행연구들이 밝히고 있다(강기정, 1999; Bowen et al., 1997). 그러나 주부의 생활정보활용도와 재정 스트레스 및 대처행동간의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3) 내외통제성

통제소재와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볼 때 장윤옥(1997)에 의하면 외적통제성이 강한 주부가 내적 통제성이 강한 주부에 비하여 인적·물적 자원관리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더 높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백기청(1987)의 연구에서도 내외통제성에 따라 스트레스를 인지하는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한편 김혜정·이기영(1997)의 연구에 의하면 내적통제 지향적 일수록 예산관련 전략을 잘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부가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일수록 예산관련전략을 잘 수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황상하(1995)는 내적 통제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문제지향적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외적통제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정서지향적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주로 사용한다고 하였다.

(4) 자원적정감

가계가 소유한 물적·인적 자원에 대한 적정감 정도는 주부의 재정 스트레스와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사료되나 이들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자원적정감이 도시 전업주부의 재정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려 한다.

III. 연구문제 및 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도시 전업주부의 재정 스트레스와 대처행동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도시 전업주부의 배경변인(객관적 변인, 주관적 변인)은 재정 스트레스 및 대처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도시 전업주부의 재정 스트레스와 대처행동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4> 도시 전업주부의 재정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대한 객관적 변인군, 주관적 변인군, 재정 스트레스 변인군의 상대적 영향력을은 어떠한가?

2. 변수의 정의

1) 배경변인

(1) 부부 의사소통도

부부간의 대화 방법, 빈도, 표현정도 등 경제문제를 포함한 가

정 내·외에 관련된 전반적인 의사소통에 대해 주부가 인지하는 만족 정도를 의미한다.

(2) 생활정보활용도

가계재무관리, 물가, 주식, 세금 그리고 소비자 문제 등에 관련된 생활정보를 대중매체와 관련기관 등에서 탐색하고 이를 일상 생활에서 실제 활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3) 내외통제성

자신의 운명을 누가 통제한다고 믿는 개념으로 내적 통제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이 자신의 삶을 통제한다고 믿는 사람들이고 외적 통제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외부에 존재하는 운이나 기회 또는 강력한 타인들에 의해 자신의 삶이 통제된다고 믿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4) 자원적정감

개인 및 가족의 욕구나 목표달성을 충족시켜 줄 수 있거나 그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하여 주부가 주관적으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정도를 말한다.

2) 재정스트레스

가계의 지출, 자산, 소득, 부채와 관련된 재무관리 상황 하에서 주부가 인지하는 갈등, 긴장 혹은 부담감 정도를 의미한다.

(1) 지출 스트레스

각종요금, 자녀의 등록금 및 생활필수품 구매 등을 포함한 일반지출 영역과 친·인척 관련 경조사비, 자동차 유지 및 수리비, 가구 혹은 가전제품 구입비 등 특별지출 영역과 관련된 가계의 부담감 정도를 말한다.

(2) 자산 스트레스

미래 자녀의 결혼자금, 노후생활자금 및 가구주의 은퇴 후 생활자금 등에 대비한 비상 준비금과 관련된 자산의 부족에서 발생하는 갈등 정도를 말한다.

(3) 소득 스트레스

가정 내 불규칙한 소득, 생활비 부족 혹은 소득 단절 등의 요인으로 인한 갈등, 불안감 정도를 말한다.

(4) 부채 스트레스

가정 내 부채가 있거나 자산 대비 부채의 비율이 높은 경우 발생하는 주부의 심리적 부담감을 말한다.

3) 대처행동

가계의 다양한 재정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거나 스트레스 상황을 제거하기 위해 주부가 일관되게 사용하는 인지적이며 행동적인 반응을 의미한다.

(1) 계획 및 지출관리 행동

계획관리 행동이란 금전자원의 사용에 있어 사전에 미리 계획하는 행동을 말한다. 즉 평소의 수입과 지출을 고려하여 각 비목

별로 예산을 세운다거나 계획에 없었던 지출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절제된 행동 등을 포함한다. 이와 더불어 지출관리 행동이란 일종의 통제행동으로 가족원의 요구정도를 판단하여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는데 필요한 관리전략이다. 가족원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금전자원을 사용함에 있어 여러 가지 상품을 비교구매 한다거나 최소한의 생활비 및 사교육비 지출을 위하여 노력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2) 지불연기 행동

지불연기는 공과금 납부 및 정기적인 적금에 대한 지출, 부채에 대한 이자 등 가계비 지출을 연기하는 것이다. 즉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금지를 혹은 적금 등을 일시적으로 지불하지 않는 행동을 의미한다.

(3) 차용행동

가계의 경제적 곤란 상황에서 일시적 극복을 위하여 신용카드 및 은행, 회사를 통하여 일정액의 부채를 얻는 행동을 의미한다.

(4) 상담·정보탐색 행동

가계의 재정위기 상황에서 가족과 회의를 하거나 혹은 소득증가나 부채감소를 위하여 친구, 이웃과 정보를 교환하거나 재정 전문가와 가계의 재정문제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상담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2. 조사도구의 구성

본 연구의 배경변인은 주부의 재정스트레스 및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주부의 연령, 교육수준, 월평균가계소득, 남편의 직업으로 구성된 객관적 변인과 내외통제성, 부부 의사소통도, 생활정보활용도, 자원적정감으로 구성된 주관적 변인으로 이루어졌다.

주관적 변인인 내외통제성은 Potter(1966)의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I-E) scale을 참고로 한 김혜정·이기영(1997)의 연구를 기초로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내적통제성향이 높고 점수가 낮을수록 외적통제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 α 계수는 .69이다. 부부 의사소통도는 계선자·강기정(1999)의 연구를 기초로 관련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총 5문항으로 작성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간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짐을 의미하며 Cronbach α 계수는 .87이다. 생활정보활용도는 김경숙(1993)의 연구를 참고로 총 7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보활용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Cronbach α 계수는 .80이다. 자원적정감은 Rowland, Dodder와 Nickols(1985)의 연구를 기초로 재구성하여 6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주부가 인지하는 자원적정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Cronbach α 계수는 .91로 나타났다. 재정 스트레스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영역을 세분화하였으며 요인분석을 토대로 소득 스트레스,

지출 스트레스, 자산 스트레스, 부채 스트레스 등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경옥(2000), 홍향숙(1999), 황덕순(1995)의 연구를 토대로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재정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스트레스를 경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0점으로 스트레스 인지수준에는 응답하지 않도록 구분하였으며 Cronbach α 계수는 .92이다.

대처행동은 이경옥(2000), 황덕순(1995)의 연구를 조사시점의 상황에 맞도록 재구성하여 작성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항상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된 대처행동은 계획 및 지출관리 행동, 지불연기 행동, 차용행동, 상담 및 정보탐색 행동 등의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19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의 대처행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 α 계수는 .73으로 나타났다.

3.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조사대상자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자녀 교육기에 해당하는 1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01년 11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두 차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2002년 1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234부의 응답이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되었으며 자료처리는 SPSS/PC 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평균, 백분율,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Cronbach α 계수, 중다 회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의 통계방법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경향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경향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전업주부의 연령은 35세 이상 45세 미만이 72.2%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교육수준의 분포는 고졸 이상이 94.5%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월평균 가계소득은 300만원 이상이 과반수 이상(55.5%)을 차지하여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남편의 직업유형은 단순노무직·생산기능직이 12.4%, 사무직이 24.8%, 자영직이 24.4%, 관리·전문직이 38.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전업주부의 주관적 변인의 일반적 경향은 <표 2>와 같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부의사소통도, 생활정보활용도, 내외통제성, 자원적정감은 대부분 3점 이상의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경향

(N=234)

변인	구분	빈도(%)	
연령	35세 미만	13(5.6)	
	35세 이상~40세 미만	80(34.2)	
	40세 이상~45세 미만	89(38.0)	
	45세 이상~50세 미만	40(17.1)	
학 관 직	50세 이상	12(5.1)	
	중졸 이하	13(5.6)	
	고졸	107(45.7)	
	대학	107(45.8)	
변 인	대학원 이상	7(3.0)	
	월평균가계소득	200만원 미만	37(15.8)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67(28.6)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60(25.6)	
남편의 직업유형	400만원 이상	70(29.9)	
	단순노무직·생산기능직	29(12.4)	
	사무직	58(24.8)	
	자영직	57(24.4)	
	관리·전문직	90(38.5)	

<표 2> 주관적 변인의 일반적 경향

변인	평균	표준편차
부부 의사소통도	3.42	.77
생활정보활용도	3.20	.70
내외통제성	3.60	.42
자원적정감	2.85	.82

조사 대상자의 재정 스트레스 및 대처행동의 일반적 경향은 <표 3>과 같으며 재정 스트레스의 평균은 2.64점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자산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스트레스 점수를 보였으며 이는 이정우·정진희(1999), 유율용(2002)의 연구와 일치한다. 자산 스트레스 다음으로 스트레스 점수가 높은 영역은 소득 스트레스, 지출 스트레스, 부채 스트레스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 전업주부의 재정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의 평균값은 2.78점을 나타내었으며 가장 높은 대처행동 점수를 보인 영역은 계획 및 지출관리 행동으로 이는 강이주·성영애(1999)의 연구와 일치한다. 계획 및 지출관리 행동 다음으로 상담 및 정보탐색 행동, 차용행동, 지불연기 행동의 순으로 대처행동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 전업주부들의 재정 스트레스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대처행동은 금전적 자원에 대한 긴축 재정관리 임이 밝혀졌다. 가계의 재정적 위기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 이와같은 계획 및 지출관리 행동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차용 혹은 지불연기 행동을 우선시 취하는 대처행동보다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계획 및 지출관리 행동은 대처성향이 강한 전략이지만 지나친 지출억제는 재정만족감을 감소시킬 수 있으

므로(김혜정·이기영, 1997) 무조건적인 지출역제가 아닌 합리적인 화폐관리전략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긴축재정 상태에 있는 가계의 주부라면 가족구성원들의 요구 수준에 맞춘 장기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차원으로 주부들의 화폐관리방안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여 가계의 현실적인 가계재무관리를 도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가계재무관리 행동을 변화시킴으로써 대처행동을 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는 달리 우리나라 주부들의 대처행동 유형은 소득 확장 및 정보탐색을 통한 가계자원의 구조적 변형과 자원의 양적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적극적인 대처와 현재의 자원 구조나 자원의 정도를 변화시키지 않고 현 소득 범위 내에서 욕구를 억제하고 지출을 줄이려는 소극적 대처 중 적극적 대처를 조금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밝힌 이경옥(2000)의 연구와는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3> 도시 전업주부의 재정 스트레스와 대처행동의 일반적 경향

변인	하위영역	평균	표준편차
재정 스트레스	지출 스트레스	2.51	.75
	자산 스트레스	3.18	1.07
	소득 스트레스	2.52	1.02
	부채 스트레스	2.28	1.14
	전체	2.64	.75
대처 행동	계획 및 지출관리 행동	2.89	.47
	지불연기 행동	2.02	.80
	차용 행동	2.03	.83
	상담 및 정보탐색 행동	2.29	.72
	전체	2.78	.41

2. 배경변인이 도시 전업주부의 재정 스트레스 및 대처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1) 배경변인이 도시 전업주부의 재정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

배경변인이 주부의 재정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표 4> 와 같다.

도시 전업주부의 배경변인에 따른 재정 스트레스를 살펴본 결과 내외통제성($\beta=-.16$)과 자원적정감($\beta=-.54$)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42%였다.

하위영역별로 볼 때 지출 스트레스는 연령($\beta=.12$), 교육수준($\beta=-.16$), 내외통제성($\beta=-.12$), 자원적정감($\beta=-.53$)이 영향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38%였다. 즉, 주부의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외적통제성향이 강할수록 그리고 자원적정감이 낮을수록 주부의 지출 스트레스는 높게 나타났다.

자산 스트레스는 월평균가계소득($\beta=-.20$)과 자원적성감

($\beta=-.50$)이 영향변인이었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34%였다. 즉, 소득과 주부의 자원적정감이 낮을수록 자산 스트레스는 높게 나타났다.

소득 스트레스는 월평균가계소득($\beta=-.14$), 남편의 직업유형 중 자영직($\beta=-.31$), 관리·전문직($\beta=-.33$), 자원적정감($\beta=-.28$)이 영향변인으로 이들의 설명력은 37%였다. 가계의 월평균소득과 자원적정감이 낮을수록 그리고 남편의 직업이 자영직 혹은 관리·전문직이 아닌 집단의 주부가 소득 스트레스를 보다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채 스트레스는 자원적정감($\beta=-.31$)이 영향변인으로 16%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자원적정감이 낮을수록 부채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주부의 연령은 재정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지출 스트레스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광주(1990)와 유을용(2002)의 연구와 일치하는 경향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주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녀의 교육비 및 장차 결혼자금에 대한 부담감 혹은 주부 자신의 노후 자금 준비 등을 포함한 가족의 요구가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가정에서는 가족생애주기 초기인 신혼기에서부터 이 시기를 대비한 경제적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표 4> 배경변인이 도시 전업주부의 재정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

중속변인 독립변인	지출 스트레스		자산 스트레스		소득 스트레스		부채 스트레스		전체	
	b	β	b	β	b	β	b	β	b	β
개관적변인 [남편의 직업]*	연령	.01	.12*	.02	.10	.00	.05	.00	.09	.01
	교육수준	.05	-.16*	.02	-.05	.02	-.05	.00	-.02	.04
	월평균가계소득	.00	-.05	.00	-.20*	.00	-.14*	.00	-.10	.00
	사무직	.02	-.01	-.10	-.08	.19	.06	-.20	-.06	.02
	자영직	.14	.08	.18	.05	-.72	-.31***	-.13	-.05	.09
배경변인	관리·전문직	.18	.12	.24	.11	-.69	-.33***	.09	.04	.01
	내외통제성	-.21	-.12*	.04	-.02	-.23	-.09	-.26	-.10	-.20
	부부의사소통도	.09	.10	.06	.04	-.03	-.28	-.12	-.08	.05
	생활정보활용도	.01	.01	-.14	-.09	.03	-.04	.07	.05	.01
	자원적정감	-.47	-.53***	-.64	-.50***	-.34	-.28***	-.41	-.31***	-.48
상수		4.138		4.911		5.062		4.509		4.613
R^2		377		337		386		.161		.420
F 비		11.80***		10.216***		12.672***		3.932***		13.414***

*p<.05 **p<.01 ***p<.001

* 남편의 직업이 단순노무직·생산기능직인 경우를 0, 사무직, 자영직, 관리·전문직인 경우를 각각 1로 둔 가변수이다.

주부의 교육수준은 지출 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지출 스트레스를 보다 높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수준이 낮은 주부는 교육수준이 높은 주부에 비하여 소비자 교육을 포함한 금전관리 교육 등을 제공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으므로 가계의 재정관리능력이 보다 저하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사회적 차원에서 주부의 교육수준 정도에 따른 차별화된 재무관리 교육을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남편의 직업이 자영직 혹은 관리·전문직이 아닌 경우 주부들은 보다 높은 재정스트레스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남편의 직업이 자영직 혹은 관리·전문직인 경우 사회적 지위 역시 단순노무직·생산기능직에 비하여 높을 것이며 이에 수반되는 금전적인 면에 있어서도 월등히 높을 것임을 유추해 볼때 가계관리자인 주부의 재정 스트레스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관적 변인인 내외통제성이 낮을수록 즉, 외적통제성향이 강할수록 재정 스트레스가 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가계의 재정위기 시 자신의 의지로 이를 극복하려 하기보다는 운명지향적인 가치관에 입각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가치관으로 재정립해야 할 것이며 사회적 차원으로 관련 교육기관에서 주부를 대상으로 가치관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자원적정감의 변인도 주부의 재정 스트레스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부가 자원적정감을 높게 인지할수록 재정 스트레스를 낮게 인지한다고 할 수 있다. 가계내 경제적 소득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주부가 인지하는 자원에 대한 적정감 정도가 높을수록 재정 스트레스를 낮게 인지하므로 주관적인 자원에 대한 적정감을 증진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가계의 인적·물적 자원에 대하여 자신보다 우월한 가계와 비교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인지할 것이 아니라 가계가 소유한 자원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최대한 이용하여 주관적인 자원에 대한 만족감을 증진시키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배경변인이 도시 전업주부의 재정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배경변인이 주부의 재정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표 5>와 같다.

배경변인이 도시 전업주부의 재정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주관적 변인 중 부부 의사소통도($\beta=.17$), 생활정보활용도($\beta=.26$), 자원적정감($\beta=-.33$)이 영향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20%였다. 즉 부부 의사소통도와 생활정보활용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주부의 자원적정감이 낮을수록 재정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계획 및 지출관리 행동은 내외통제성($\beta=.14$), 부부 의사소통도($\beta=.29$), 생활정보활용도($\beta=.32$), 자원적정

감($\beta=-.18$)이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25%로 나타났다. 즉 내적통제성향, 부부 의사소통도 및 생활정보활용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자원적정감이 낮을수록 계획 및 지출관리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처 행동 중 지불연기 행동은 주관적 변인 중 자원적정감($\beta=-.26$)이 영향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8%를 보였다. 즉 주부의 자원적정감이 낮을수록 지불연기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처행동으로서 차용행동은 교육수준($\beta=.07$)이 영향변인으로 7%로의 설명력을 보였다.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차용행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및 정보탐색행동은 부부 의사소통도($\beta=.14$)와 생활정보활용도($\beta=.28$)가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이들의 설명력은 15%로 나타났다. 부부 의사소통도와 생활정보활용도가 높을수록 재정 스트레스 대처행동으로서 상담 및 정보탐색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배경변인이 도시 전업주부의 재정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독립변인 종속변인			계획및지출 관리 행동		지불연기 행동		차용 행동		상담 및 정보탐색 행동		전체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배경변인	연령	.00	-.03	.08	.05	-.00	-.01	.00	-.04	-.00	-.03	
	교육수준	.02	-.12	.03	-.03	.06	.07*	.01	.05	-.00	-.02	
	월평균가계소득 [남편의 직업]※	.00	-.04	.00	.03	.00	.04	.00	.04	-.00	.03	
	사무직	.09	.07	-.24	-.10	.14	.06	.32	.14	.08	.07	
	자영직	.00	.00	-.25	-.14	.15	.08	-.05	-.04	-.00	-.00	
	관리·전문직	.01	.01	-.10	-.06	.25	.15	.04	.03	.07	.09	
주관적변인	내외통제성	.16	.14*	.02	.01	-.12	-.06	-.04	-.03	.05	.05	
	부부 의사소통도	.12	.29**	-.06	-.06	.02	.02	.13	.14*	.09	.17*	
	생활정보활용도	.22	.32***	-.00	-.00	.01	-.01	.29	.28***	.16	.26***	
	자원적정감	-.11	-.18*	-.25	-.26***	-.14	-.14	-.13	-.15	-.17	-.33***	
상수		1.966		2.746		1.804		1.396		2.348		
R^2		247		.084		.069		.147		.198		
F비		6,537**		1,863		1,538		3,478***		4,765***		

*p<.05 **p<.01 ***p<.001

※ 남편의 직업이 단순노무직·생산기능직인 경우를 0, 사무직, 자영직, 관리·전문직인 경우를 각각 1로 둔 가변수이다.

이상의 결과로 주부의 교육수준은 차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차용행동을 보다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신용도와 관련하여 은행대출 혹은 신용카드를 통한 대출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빈번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재테크의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위해 재산증식의 일환으로 차용행동을 취할 수 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2001년 12월 현재 우리 나라 가구 당 부채

가 2,200만원을 초과한 현 시점(한국일보, 2001년 12월 15일자)에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채관리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교육수준이 높은 주부들이 솔선수범하여 교육을 받아 다른 계층의 주부들에게도 파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주부의 내외통제성이 높을수록 즉, 내적통제성향이 높은 주부일수록 이상적인 재정 스트레스 대처행동이라 할 수 있는 계획 및 지출관리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계관리자인 주부들은 재정위기시 이를 극복하겠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가치관에 입각하여 대처행동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부부 의사소통도의 변인은 계획 및 지출관리 행동, 상담 및 정보탐색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의 의사소통도가 높을수록 지불연기 행동과 차용행동에 비하여 안정적인 대처행동이라 할 수 있는 계획 및 지출관리 행동과 상담 및 정보탐색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부는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를 포함한 제반 영역에 대하여 대화의 질적 양적 수준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주부의 자원적정감은 대처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자원적정감이 높을수록 대처행동을 보다 소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원적정감이 높으면 재정스트레스가 낮을 것이므로 이에 따른 대처행동도 소극적일 것으로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3. 도시 전업주부의 재정 스트레스와 대처행동간의 상관관계

조사대상 주부의 재정 스트레스와 대처행동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도시 전업주부의 재정 스트레스와 대처행동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재정 스트레스와 대처행동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 .378$).

다시 말해 주부의 재정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대처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강이주·성영애(1999), 황덕순(1993), Olson(1994), Voydanoff와 Donnelly(1989)의 연구와 일치한다.

지출 스트레스의 경우 지불연기 행동($r=.391$)과 가장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지출 스트레스를 높게 인지할수록 지불연기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불연기 행동은 일시적인 대처행동일 뿐 긍정적인 차원의 대처행동이 아님을 감안할 때 긴축재정 혹은 상담행동 등을 통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 외에 하위 영역인 자산, 소득 스트레스의 경우에도 지불연기의 대처행동이 보다 적극적인 대처행동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채 스트레스의 경우 차용행동($r=.415$)이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손상희(1995)의 연구와 일치한다. 가계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반복되는 차용행동은 가계관리

자인 주부는 물론 가족구성원들에게도 심리적 스트레스를 각종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부채로 인한 재정위기에 있는 가계의 주부를 대상으로 부채관리 교육의 시급함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신용카드를 통한 대출이 보다 용이해지고 빈번해짐에 따라 신용카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건전한 사용행동에 대한 교육도 사회적 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표 6> 도시 전업주부의 재정 스트레스와 대처행동 간의 상관관계

재정 스트레스	대처행동	계획 및 지출 관리 행동	지불연기 행동	차용행동	상담 및 정보탐색 행동	전체
지출 스트레스	.075	.391***	.319***	.230***	.374***	
자산 스트레스	.042	.300***	.128	.136***	.229***	
소득 스트레스	.056	.301***	.069	.084	.168*	
부채 스트레스	.016	.366***	.415***	.164*	.340***	
전체	.054	.448***	.366***	.230***	.378***	

* $p<.05$ ** $p<.01$ *** $p<.001$

4. 도시 전업주부의 재정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 군의 상대적 영향력

도시 전업주부의 재정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대한 객관적 변인군, 주관적 변인군, 재정 스트레스 변인군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각 독립변인군들을 추가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1단계에서는 객관적 변인군을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다음 2단계에서는 주관적 변인군을 추가로 분석하였으며, 다음 3단계에서는 재정 스트레스 변인군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표 7참조>.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남편의 직업유형 중 사무직($\beta=.18$)이 영향변인이었으며, 다음 2단계에서 주관적 변인을 추가한 결과 부부 의사소통도($\beta=.16$), 생활정보활용도($\beta=.26$), 자원적정감($\beta=-.36$)이 영향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로 재정 스트레스 변인군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부채 스트레스($\beta=.24$)가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처음 1단계에서 객관적 변인을 분석한 결과 설명력이 4%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주관적 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설명력이 22%($p<.001$)로 1단계에 비해 18%의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다음 3단계에서 재정 스트레스 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설명

력이 31%($p<.001$)로 9%의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표 7> 도시 전업주부의 재정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대한
제 변인군의 상대적 영향력

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b	β	b	β
객관적 변인	연령	-.00	-.02	-.00	-.05	-.00	-.06
	교육수준	-.00	-.01	-.00	-.01	.00	.03
	월평균가계소득 [남편의 직업]※	-.00	-.10	.00	.03	.00	.05
	사무직	.23	.18*	.10	.08	.13	.10
	자영직	.02	.08	-.01	-.02	.00	.00
	관리·전문직	.07	.09	.05	.07	.03	.05
주관적 변인	내외통제성			.06	.06	.12	.12
	부부 의사소통도			.08	.16*	.08	.15*
	생활정보활용도			.16	.26***	.15	.25***
	자원적장감			-.19	-.36***	-.10	-.20*
재정 스트레스	지출 스트레스					.02	.15
	자산 스트레스					-.00	-.02
	소득 스트레스					.01	.04
	부채 스트레스					.09	.24**
상수		2.852		2.408		1.549	
R^2		.04		.216		.307	
F 비		1.240		4.803***		5.384***	

* $p<.05$ ** $p<.01$ *** $p<.001$

※ 남편의 직업이 단순노무직·생산기능직인 경우를 0, 사무직, 자영직, 관리·전문직인 경우를 각각 1로 두는 가변수이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주관적 변인을 추가로 분석한 2단계에서 설명력이 가장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부의 재정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주부의 객관적인 변인보다는 주관적인 변인에 의해 보다 많은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또한 3단계에서 재정 스트레스 변인을 추가로 분석한 결과 설명력은 9% 증가하였다. 특히 부채 스트레스($\beta=.24$)는 대처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부채 스트레스를 높게 인지할수록 대처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손상희(1995)의 연구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주부의 연령이 높을수록 재정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 각 가정에서는 가족생애주기 초기인 신혼기에서부터 가족의 경제적 요구가 증가하는 시기를 대비한 경제적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수준이 낮은 주부는 교육수준이 높은 주부에 비하여 재정 스트레스를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비자 교육을 포함한 금전관리 교육 등을 제공받을 기회가 상대

적으로 적을 수 있으므로 가계의 재정관리능력이 보다 저하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사회적 차원에서 주부의 교육수준 정도에 따른 차별화된 재무관리 교육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외적통제성향이 강할수록 재정 스트레스가 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가계의 재정위기 시 자신의 의지로 이를 극복하려 하기보다는 운명지향론적인 가치관에 입각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가치관으로 재정립해야 할 것이며 사회적 차원에서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가치관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넷째, 부부 의사소통도가 높을수록 대처행동으로서 계획 및 지출관리 행동과 상담 및 정보탐색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부는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를 포함한 제반 영역에 대하여 대화의 질적·양적 수준을 높여 재정위기시 보다 이상적인 대처행동 방안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부채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으로 차용행동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반복되는 차용행동은 주부는 물론 가족구성원들에게도 심리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부채로 인한 재정위기에 있는 가계의 주부를 대상으로 부채관리 교육의 시급함을 시사한다.

여섯째, 도시 전업주부의 재정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으로 계획 및 지출 관리 행동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지난친 예산축소와 지출절감 행동은 주부 본인은 물론 가족 구성원들의 경제적 긴장을 초래하기 쉬우므로 소득원 확충전략과 같은 보다 능동적인 대처행동과 함께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토대로 도시 전업주부들의 재정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주부의 교육수준 및 가족생애주기에 따라 사회적 차원으로 재무관리교육을 비롯한 소비자 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주부 자신 스스로 진취적인 인생관·가치관을 정립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계의 재정상황에 대하여 주관적인 만족감을 증진시키도록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근거로 하여 후속연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재정문제, 재정사건, 재정위기 등과 함께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설문문항에 대한 분류 및 수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각각의 변인에 대한 척도 및 표준화된 모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가계의 재정문제는 어느 가정, 어느 지역에서나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서울 및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이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전국적인 조사가 후속연구에서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적인 연구를 하였지만 주부의 재정 스트레스는 장기화된 성격을 갖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을 고려한 종단적인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도시 전업주부 가계의 재정위기 상황하에서 재정 스트레스와 대처행동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가계의 궁극적인

목표인 경제복지 향상에 적합한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재정 스트레스를 보다 경감시키고 더욱 이상적인 대처행동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관련 재무관리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중요한 정보로서 제공되기를 기대한다.

□ 접수일 : 2002년 5월 15일

□ 심사완료일 : 2002년 8월 30일

【참 고 문 헌】

- 장기정(1999). 도시 취업주부의 가계재무관리유형, 가정경제기여도 및 경제복지감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이주·성영애(1999). 가계소득감소 경험여부가 가계의 경제적 대처 행동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10(2), 71~83.
- 유율용(1999). 도시주부의 가계재무관리 능력 및 재정만족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3(1), 35~49.
- 계선자·장기정(1999). 도시취업주부의 가계재무관리유형 및 관련변인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3(2), 17~32.
- 고보선(1996).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관리체계와 가계재정복지.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보선·임정빈(1998).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주관적 재정복지.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1), 59~77.
- 김경숙(1993). 취업주부의 가정관리능력과 행동유형에 관한 체계론적 접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명자(1992). 중년기 부부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가족응집력, 적응력 및 복지감연구. 숙대논문집, 33, 31~56.
- 김미현·류점숙·신효식(1993). 주부의 가정생활상의 Stress와 심리적 손상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2), 111~126.
- 김시월·박배진(1999). 사교육비 부담의 대처행동 유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10), 67~79.
- 김연상·김순미(1991). 체계문적 관점에서 본 가정의 주관적 재정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103~117.
- 김재경·문숙재(1992). 부부의 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1), 53~74.
- 김혜정·이기영(1997). 주부의 화폐관리전략과 재정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1), 17~26.
- 노자경(1996). 농가주부의 경제적 스트레스 지각수준과 관련변수.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7(2), 139~152.
- 대우경제연구소(1999). 분기별 국내 경제 전망.
- 문숙재·김순미·양정선(1996). 가계의 부채보유여부 및 부채액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157~169.
- 박선옥(1996). 가계재정관리유형에 따른 재정문제와 그 대처방안.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기정(1987). 스트레스 요인으로서의 생활사건과 통제소재 및 불안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삼성경제연구소(2002). 2002년 1/4분기 소비자태도조사.
- 성영애·양세정(1995). 가계의 부채부담과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207~219.
- 손상희(1995). 부채농가의 경제적 대처행동.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 133~143.
- 유율용(2002). 도시주부의 재정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경제복지감 연구-중류층 가계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경옥(2000). 가계의 경제위기대처행동에 대한 체계적 접근.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광주(1990). 주부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응방법에 관한 연구.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숙·고선주·권희경(2000).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부부갈등 및 생활의 질. 대한가정학회지, 38(6), 117~132.
- 이정우·정진희(1999). 도시주부가 인지한 가계의 재정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3(1), 51~65.
- 최덕경(1992). 도시 주부의 가정생활문제 인지와 스트레스 정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1), 115~130.
- 이종혜(1993). 도시가계의 경제적 안정도와 재정만족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정빈·조미환·이영호(1998). 도시가계의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3), 141~153.
- 장윤옥(1997). 가정자원, 통제소재 및 스트레스 대처방법이 주부의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287~300.
- 정혜경(1999). 가계의 경제적 불안과 소비행동.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제은석(1999). 가계의 부채부담과 경제적 대처행동. 인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혜정·임정빈(1994). 가정생활사건과 가정관리 행동성향이 가정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2(5), 15~27.
- 주인숙(1995). 도시가계의 부채관리와 재정만족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연숙(1996). 도시가계의 부채관리와 재정만족도 - 체계론적 접근법의 적용 -.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111~125.
- 지연경·조병은(1991). 내외통제성 및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과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29(2), 217~240.
- 최자령·임정빈(1996). 도시가정의 재정적 사건, 대처전략 및 경제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4), 175~189.
- 한국소비자보호원(1999). IMF체제 전후의 소비 의식 및 행태비교. 한국소비자보호원(1997). 사교육비 지출실태 및 경감방안. 한국소비자보호원
- 한정화(1997). 도시주부의 가족응집력과 적응력에 따른 경제복지감.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덕순(1993). 가계의 경제적 안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69~82.
- 황상하(1995).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및 대처방법과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향숙(1999). 가계의 경제적 불안정성 유형에 따른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Beaver, B. R.(1997). The role of emotion in children's selection of strategies for coping with daily stresses. *Merrill-Palmer Quarterly*, 43, 129~146.
- Beutler, L. F. & J. W. Mason(1987). Family cash-flow budgeting. *HERJ*, 16, 3~12.
- Bowen, C. F., Lago, D. J., & Furry, M. M.(1997). Money management in families : A Review of the literature with a racial, ethnic, and limited income perspective. *Advancing*

- the Consumer Interest, 9(2), 32-42.*
- Bruce, M. L.(1996). *Problem-and Emotion-Focused Coping Strategies in Household Financial Management: Income expansion versus money devaluation*. Saint Louis University. Ph.D.
- Buelher & Hogan(1986). Planning styles in single parent families. *HERJ, 11(1)*, 67-75.
- Herendeen, J.(1974). The role of credit in the theory of the household. *Journal of Consumer Affairs, 8(2)*, 157-181.
- Lee, P.(2000). *Earnings Management at Different Stages of Financial Distress*.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Ph.D.
- Olson, P.M.(1994). Behavioral adjustment made by overextended consumers. *Consumer Interest Annual, 40*, 136-141.
- Rowland, V. T., Dodder., R. A. & Nickols., S. T.(1985). Perceived adequacy of resources: development of a scale, *HERJ, 14(2)*, 218-225.
- Varcoe, K., P.(1990). Financial events and coping strategies of household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of Home economics, 14*, 57-69.
- Voydanoff, P., & Donnelly, B. W.(1989). Economic distress and mental health : The role of family coping resources and behaviors, Lifestyle. *Family and Economic Issues, 10(2)*, 139-161.
- Winter, M.B. & Morris, E.W.(1984). The assessment of subject chance in family financial well-being. *Family Strengths, 5*, 399-417.
- 동아일보(2001). 9월 소비자물가 3.2% 올라. 2001년 9월 29일 자.
(<http://www.donga.com/>)
- 조선일보(2001). 준비 않는 30~50대, '노인 거지' 십상 2001년 10월 9일 자, (<http://www.chosun.com/>)
- 한국일보(2001) 가계빚 가구당2200만원! 2001년 12월 15일 자.
(<http://www.hankooki.com/hankook.htm>)